

“전경성과 전경 정보를 통해 본 한국어 조사 부류의 통사 현상 -‘가, 를, 는, 도’의 양립 불가능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병철(경남대)

토론자는 한국어의 조사에 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가 수행했던 연구와는 학문적 배경이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질문들은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문외한의 노력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논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먼저, 이 연구에서는 Talmy나 Langacker와 같은 인지언어학자들의 견해가 인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연구는 전적으로 인지언어학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가요? 전경성이나 전경 정보에 대한 논의도 인지언어학적인 논의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다른 연구의 흐름이 이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적 전경, 내부적 전경 등의 용어는 이 연구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 용어가 사용된 선행 연구나 두 개념의 구분이 이루어진 연구사적인 과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경성, 전경 정보 등의 용어도 토론자에게는 낯선데, 용어 사용의 기원이나 선행된 논의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의 조사, 특히 ‘는’과 ‘가’의 의미를 탐구할 때, 전경(foreground)/배경(background)과 figure/ground, 그리고 trajector/landmark 등의 개념이 중요하게 연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념들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정병철(2012, 2017: 112)을 참고하면 ‘는’은 내인성 주의, ‘가’는 외인성 주의를 표시하는데, 내인성 주의와 외인성 주의는 서로 구분되는 인지 과정이므로 두 조사는 함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전체의 주의 과정은 또한 외인성 자극과 내인성 자극의 상호 작용과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길을 걸을 때 갑자기 들리는 자동차의 급제동 소리나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 등은 외인성 자극으로 강제로 주의를 이끌어 낸다. 이때는 외인성 자극이 주의 선택의 경쟁 과정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반면, 사람이 많은 서울역 광장에서 친구를 찾을 때는 ‘목적’이라는 내인성 자극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정병철 2017: 111)

(예) 만수는 계단을 올라올 때 흘린 목걸이를 찾기 위해 방향을 돌렸다. 그 때 어디선가 화재를 알리는 경보가 울렸다. 창밖을 보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왼쪽 유리창이 깨지면서 과편이 튀었다.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몇 걸음이나 갔을까? 왼쪽 발에 뭔가 뽕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찾던 목걸이었다. → 외부의 자극이 주의를 이끌어낸 경우 ‘이/가’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인성 주의와 외인성 주의의 구분에 근거하여 조사 부류의 통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연구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이 연구에서는 전경성과 전경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P-논점성(Proposal-at-issueness)와 찬성/반대 검증법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P-논점성의 개념과 그 발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P-논점성이 발표문의 내용과 같이 ‘대화자들의 주목을 나타내는 전경 정보와 가장 가까운 개념’인 원인이 무엇인지, P-논점성이 전경성, 전경 정보와 관련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논점성이 전경 정보와 비슷하다면 그 외연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6) (18A)처럼 선행 명사구가 지시하는 개체가 명제의 사태에서 성립할 것으로 쉽게 예상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까지’와 격조사와의 양립 가능성은 낮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18A)에서 ‘까지’와 격조사 ‘가’의 결합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18) A: 초등학생까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참고문헌]

정병철(2010), “주의 이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주어 연구”, 담화와 인지 17(2), 119-146.

정병철(2017), 한국어 문법 교육의 인지적 토대, 한국문화사